



선한 의사 장기려

이상규 (고신대학교 부총장)

성산(聖山) 장기려(張起呂, 1911-1995) 박사는 선한 의사로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제도인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창설하고 청십자의원을 개원하는 등 가난한 서민을 위한 의료 활동을 전개했다.
장기려 박사의 행동 양식, 신념, 그리고 사회적 활동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의 삶의 여정과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들에 대해 살펴보자.

생애와 삶

장기려는 1911년 8월 14일(음)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 입암동 739번지에서 한학자였던 장운섭과 최윤경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기독교적 배경에서 성장한 그는 의성 학교와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수학한 후 의사가 되었다. 그는 17세인 1928년 경성의전을 지원하면서 의사가 되게 해준다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 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것이 '선한 의사'로서의 첫 결단이었다. 경성의전 졸업 후 김봉숙과 결혼하면서 장인 김하식의 권유로 백인제 선생 문하에서 외과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때부터 후복막 봉과직염(後腹膜 蜂窠織炎)과 폐혈증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1940년 9월에는 "충수염 및 충수염성 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기려는 1940년 3월 평양의 연합기독병원 외과 과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 병원은 감리교 선교사인 윌리엄 홀을 기념하여 1897년에 설립된 기홀병원(The Hall Memorial Hospital)에서 시작하여 1923년 평양의 장로교병원과 병합한 후 평양 연합병원으로 개칭된 기독교 병원이었다. 두 달 후 장기려는 안도선(安道宣, A. G. Anderson)의 후임으로 병원장에 취임하게 되었지만,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질시 때문에 두 달 만에 다시 외과 과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봉사한 일은 아름다운 일화로 남아 있다.



1943년에는 간상변부에 발생한 간암의 설상절제 수술(楔狀切除手術)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선의 학회에서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고, 1945년 11월에는 평양도립병원장 겸 외과 과장으로 약 일 년간 일했다. 1947년 1월부터는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갔는데, 그는 이곳에서 수술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등 일관된 신앙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신뢰받았고, 1948년에는 북한 과학원에서 최초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0년 전쟁과 분단은 장기려에게도 시련을 안겨 주었다. 차남 가용만을 데리고 남하한 그는 부산 제3육군병원에서 약 6개월간 봉사한 후 경남 구제위원회 전영창 총무와 서기 겸 회계인 김상도 목사,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의 요청으로 1951년 6월 부산 영도 남향동에서 무료 의원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병원의 시작으로, 이때부터 1976년 6월까지 25년간 복음병원 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또한 서울대 의대(1953. 3-1956. 9)와 서울 가톨릭 의대(1965-1972. 12) 외과학교수로 부산대 의대에서는 교수 및 학장(1956. 9-1961. 10)으로 있으면서 외과를 창설하기도 했다. 간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1959년 2월에는 간 대량절제수술에 성공함으로써 이 분야에 큰 기여를 했으며, 계속된 연구로 1961년에는 대한 의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장기려 박사는 의료 활동 외에도 전도 및 성경 공부를 위해 1956년 “부산모임”을 시작하였고, 1959년에는 ‘부산기독교사회’를 조직하였다. 1968년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복음병원 분원에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발족한 것은 그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다.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 의료보험조합은 정부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보다 10년이나 앞선 순수 민간단체 주도의 의료보험 기구였다. 1975년에는 의료보험조합 직영의 청십자원이 개원되었고, 이듬해에는 한국 청십자사회복지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1979년 8월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막사이사이 사회봉사상을 수상했고 복음

병원에서 은퇴한 후에도 청십자원에서 진료하는 등 사회 봉사활동을 계속하다가 1995년 12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 생명, 평화는 그의 생애를 엮어간 핵심 요소였다.

삶의 기초로서의 기독교 신앙

장기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기독교 신앙이었다. 기독교 신앙이 그의 삶과 인격을 주형했다. 그의 이타적 삶,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술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신앙은 그의 삶의 근거이자 기초였고 목표였으며, 84년의 생애를 움직여 온 축이었다.

그는 어릴 때 할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웠고 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인 1925년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깨닫고 신앙적 삶을 모색하게 된 것은 경성의전을 졸업한 후였다. 그는 후지가 다케시, 우찌무라 간조, 야나이하라 다대오, 김교신, 함석헌 등 무교회적 인사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그는 김교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김교신은 내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다. 장기려는 무교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자신은 무교회주의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장기려는 해방 후 산정현교회가 다시 집회를 시작하자 출석하기 시작했고 곧 집사가 되었다. 평양인민병원 원장으로 있을 때인 1948년 8월에는 장로가 되었다. 이처럼 그는 교회주의자로 제도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무교회주의자들의 성경 연구와 가르침을 수용했다. 그의 영성은 교조주의적 한계에서 자유로웠고, 극단에 치우쳐 다른 편을 무시하는 등의 편협성에 빠지지 않았다.

남하한 이후 장기려는 이이라 장로, 박덕술 권사와 함께 1951년 10월 부산 중구 동광동에 산정현교회

를 재건하였는데, 이 교회를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로 둔 것은 제도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장기려는 제도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무교회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었고, 무교회주의를 따르면서도 제도교회를 거부하지 않았다.

1981년 12월 부산 산정현교회 장로직에서 은퇴한

그는 1987년부터 흔히 ‘중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비교파적, 비조직적 신앙 운동에 관여하였고 치료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기 전까지 적극 참여하였다. 평소 제도교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장기려 박사는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순

수한 복음 운동에 매력을 느꼈고 이 ‘중들의 모임’에서 영적 안식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려 박사는 외적 조직에서 자유로운 복음적 신앙에 착념하였다. 따라서 그는 교회의 전통이나 신앙 고백, 교리적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 운동, 신앙적 실천, 삶이 있는 신앙을 추구했다.





실천적 삶

그의 삶의 실천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위로 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의는 하나님 사랑의 외연이었으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 복음병원에서 은퇴한 후 청십자의료조합과 청십자의원을 개원한 일이나 부산의 아동병원, 거제도의 애광원, 그리고 보건원의 자문의 봉사 등은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준다. 실천적인 사랑과 선의는 그의 일관된 삶이었다.

둘째,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존엄성(dignity)과 신성성(sanctity)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하나님이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인간의 생명은 그분 손 안에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다. 그에게 의료

활동이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 보존시키는 것으로 인위적인 생명의 파괴는 범죄였다. 그는 생명에 대한 기능주의적 입장을 배격했다. 간 이식 연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그의 의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셋째, 무사무욕(unselfishness)의 삶을 살았다. 장기려는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다. 그에게 소유는 궁극적으로 남을 섬기는 수단이었다. 그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고, 물욕이나 명예욕에 빠지지 않았다. 그의 삶이나 그가 남긴 유품들은 그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고,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는지를 보여준다. 장기려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기적 부의 추구를 가능케 해주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에 비판적이었다. 한 시대를 이끌어난 명의(名醫)에게 무사무욕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의 태도이다. 그러나 그는 자족하며 사랑과 베품의 윤리를 실천했다.

넷째, 함께 사는 사회(togetherness)를 추구했다. 상부상조, 공생과 상생은 장기려의 윤리였다. 근본적으로 그의 모든 것, 곧 소유, 학문, 학위, 명예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창설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같이 살기 위해서였다. 1975년에 부산 수정동에서 청십자위원을 시작한 것도 가난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행려환자의 구호, 기독교사회를 통한 구급 활동, 간질병 환자를 위한 장미회 운영, 가난한 이웃을 위한 의료보험조합운동 등은 공생과 상생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한 형제애를 강조하되 북한의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함께 사는 사회'는 그의 일관된 신념이자 실천 강령이었다. 즉, 그는 사랑의 보편주의(love-universalism)를 추구한 인물이었다.





다섯째, 종파주의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는 순수한 복음적 믿음만을 추구했지 교파나 교단, 인간이 만든 외형적 조직에 매이지 않았다. 즉, 그는 특정 교파나 교단을 절대시하거나 독선주의 혹은 편협한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무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성 조직교회를 경시하지 않았고,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면서도 무교회 신앙이나 웨이커 교도와 교류했다. 그는 외형보다는 순수한 복음을 지향했고 신앙의 정통성(Orthodoxy)보다는 신앙의 정체성(Identity)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맺는 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려의 삶을 결정했던 신념, 행동양식, 사회활동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인도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의 생애와 삶의 여정이 인도주의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다. 그의 삶과 실천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

여섯째, 기독교적 가치(Christian values)를 추구했다. 그는 일생을 봉사자의 삶을 살았으며 겸손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썼다. 그는 왜곡된 삶의 행태로 비난받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 것을 고취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보여주었다. 기독교 신앙은 그를 움직이는 이념이자 초석이었다.

고 신적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다. 의료인으로서 그의 모든 활동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고 이차적으로는 인간을 섬기는 일이었다. 장기려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이웃을 섬기는 도구였다. 이것이 그의 소명(calling)이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이 두 측면은 그의 삶과 생애, 의료 활동을 이끌어간 양 기둥이었다.



이상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총장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 호주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과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연구이사, 개혁신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등이 있다.





장기려 선생님의 다른 서적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간의 부분절제 및 대량절제술에 성공. 부산외과학회를 창립하여 의학 연구 분야에 큰 공적을 남긴 인물.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병원과 간질환자들의 모임인 '장미회'에서 활동,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협동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을 창설하는 등 온전히 이웃을 위해 살다간 장기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사회봉사 부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자랑스런 서울대인 등을 수상하고도 이런 업적으로 기억되기보다 오직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된 사람 '바보 의사'라 불리기를 기뻐했던 성산 장기려.

“만일 누가 나에게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기독교 이상 주의자로 살고 싶다.”



장기려, 그 사람

지강유철 저 | 홍성사

‘한국의 슈바이처’, ‘사랑의 의사’, ‘무소유의 삶’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장기려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평전 〈장기려, 그 사람〉. 장기려 선생에 대한 이전의 연구서나 책들이 간과하거나 예들러 간 문제들을 그의 일기, 노트,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들과 무엇보다 그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명하면서 ‘참 장기려’를 그려내고 있다.

그는 거짓을 저주받을 짓이라 여기고 정직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으며, 의료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는 의사였다. 또한 자신의 집에 구걸 온 거지와 겸상을 하고 입고 나간 코트를 거지에게 벗어주는 등 권력이나 돈, 신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오직 생명 있는 ‘존재’로 대하는 인물이었다. 평생을 공부밖에 몰랐던 사람. 없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더라도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 다며 전문의 자격증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외과학회 명예 회원을 고집했던 사람이었다.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공약만 있고 실천은 없는 정치, 예언자적 목소리는 사라지고 축복만 넘치는 교회, 대중사회에서 고립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 비전 없이 전공을 택하고 젊은 날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만 하는 세대, 맘몬에 빠져 돈이라면 뭐든 하는 사회,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갈라서는 부부들. 참 평안이 없이 방황하는 오늘 이 시대에 장기려 선생의 메시지가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평화에 관한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를 청결케 하는 일이다. 믿음 생활을 다시 살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다. 참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뜻을 잘 살피며 헌신하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개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세계에도 참 평화는 없다.”



아이들과 함께 읽는 장기려 선생.

만화로 만나보는 바보 의사 장기려

류세이온 글, 그림 | 주니어 아가페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바보 의사’로 산 장기려 선생.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좇으며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가난한 환자를 섬긴 장기려 선생은 똑똑해지려고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바보’ 장기려. 장기려 선생의 위대한 삶을 생동감 넘치는 만화로 만나본다.

“경건한 인격자가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자, 자기 양심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만할 수 있는 자가 되자.”



DVD 소개

장기려 선생님 관련 영상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S미디어 모노다큐 인물한국사(비디오 녹화자료) 〈의학박사 장기려〉(2004, KBS미디어) DVD 1매(60분)
- KBS미디어 모노다큐 인물한국사 〈우리 시대의 성자-성산 장기려〉(2005, KBS미디어) DVD 1매(60분)
- KBS미디어 인물현대사 〈사랑은 기적을 이룬다-장기려〉(2003, KBS미디어) 비디오
- EBS 신년특집 〈명이가 뽑은 명의 장기려 박사 편〉(2009)
- EBS 지식채널 〈의사 장기려 1, 2부〉(2009) 1부 성공의 길 / 2부 바보라 불린 의사

※ EBS e지식채널 〈의사 장기려 1, 2부〉(2009)는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